

■ 주요 뉴스: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 증가 우려

- 트럼프 대통령, 이민 단속 강화 방침
- ECB 라가르드 총재, 현재 정책금리는 적정 수준
- S&P Global,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 신용등급 강등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휴 소비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강화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5%], 달러화 약세[-0.1%], 금리 상승[+2bp]

- 주가: 미국 S&P500은 블랙프라이데이 소비 호조 등으로 상승
유로 Stoxx600지수는 0.2% 상승
- 환율: 달러화는 加 경제성장률 호조, 日 금리인상·歐 금리동결 기대 등으로 약세
유로화 가치는 +0.02%, 엔화 가치는 +0.1%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한산한 거래 속 위험선호 분위기로 소폭 상승
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1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종가 1465.1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7.6원, 0.2% 하락). 한국 CDS 보합

11/28일					11/27일	전일대비	11/28일					11/2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6,849.1	(휴장)			—	국채 금리 10y	미국	4.01%	3.99%			2bp
	유럽	576	575			0.25%		독일	2.69%	2.68%			1bp
	중국	3,888.6	3,875.3			0.34%		영국	4.44%	4.45%			-1bp
	일본	50254	50167			0.17%	CDS 5y	한국	23bp	23bp			0bp
	한국	3926.6	3986.9			-1.51%		중국	48bp	47bp			1bp
환율	달러지수	99.447	99.536			-0.09%	위험 지표	EMBI+	—	—			—
	유로화	1.1598	1.1596			0.02%		VIX	16.35	17.21			-5.00%
	엔화	156.1	156.3			0.11%		WTI유	58.55	59.10			-0.93%
	위안화	7.0745	7.0795			0.07%	원자재	구리	518.55	505.50			2.58%
	원화	1470.6	1464.9			-0.39%		금	4239.4	4157.6			1.97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부채 증가 우려

- 독일 연방의회(하원)은 '26년 예산안을 승인. 핵심 예산 외 인프라 및 국방 특별 기금을 통한 차입을 추가할 경우 정부부채는 1,800억유로 이상 증가 예상
 - 한편 독일 메르츠 총리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압박을 줄여주기 위해 EU 집행 위원장에 “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실질적 금지 완화”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
- 일본 다카이치 총리 내각은 18.3조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으며, AI와 반도체 개발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2,525억엔 규모의 지출이 포함
 - 추경 예산 중 11.7조엔은 신규 부채로 충당될 예정으로, 일본 정부는 당해 연도 국채발행 계획을 수정(2·5년물 각각 3천억엔, 단기 국채 6.3조엔 증액)
- 영국은 재정긴축 예산안을 발표(11.26일)했으나, 주요 신용평가사는 영국의 예산안 이행에 대해 의구심 제기
 - S&P Global과 Moody's는 집권 노동당 지지율 하락 속 주요 지출 감축, 증세 조치가 '28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, '29년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재정긴축 정책이 일부 철회될 수 있다며 실질적 이행 여부에 대해 회의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트럼프 대통령, 이민 단속 강화 방침

- 워싱턴 주방위군 병사 총격 사건 이후 특정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 입국 중단, 일부 귀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,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복지 혜택 중단 계획 등 반이민 정책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(자동 서명장치)으로 서명한 행정명령과 문서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게시

■ ECB 라가르드 총재, 현재 정책금리는 적정 수준

-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축소됐으나 미국의 관세 인상, 공급망 차질의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. 경제는 예상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
- 한편, 독일 11월 물가상승률(HICP)은 전년동월비 +2.6%로 9개월래 최고수준으로 상승. 전월수준(+2.3%) 및 예상치(+2.4%) 모두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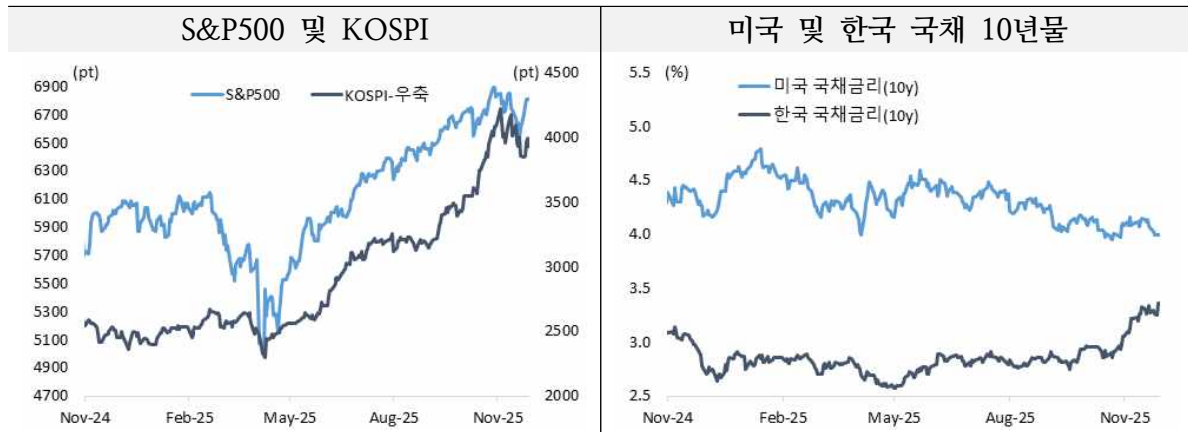
■ S&P Global,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완커(Vanke) 신용등급 강등

- S&P Global이 중국 최고수준의 개발사 중 하나인 완커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CCC-로 강등(전망 부정적)함에 따라 부동산시장 위기 우려가 재점화
- **우크라이나 대표단, 미국이 추진하는 러-우 평화 계획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**
 -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장과 외무부 제1차관을 포함한 대표단은 플로리다에서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만날 예정
- **WTO, 글로벌 교역증가율 둔화**
 - WTO의 9월 상품 교역지수는 101.8로 6월의 102.2 대비 둔화.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선주문 증가 효과가 약화된 데 기인
- **인도 7~9월 GDP성장률 +8.2%, 예상(+7.4%) 상회**
 - 미국의 50% 고율관세 발효에 따른 시장심리 위축,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주문 감소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. 다만, 인도 루피화의 대미달러 가치는 수입업체 달러화 수요,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 지연 등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락(-0.2%)
- **대만 통계청, '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**
 -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은 가파른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.81%(8월 전망)에서 3.54%로 상향조정
- **국제유가, '23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하락(11월 -4.0%)**
 - 국제유가는 미국 9월 산유량 역대 최대 기록, 러-우 전쟁 종식 가능성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 전망으로 약세압력 지속. 한편, 구리 가격은 미국 추가 금리인하 기대, 정제구리 공급부족 악화 등으로 1개월래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(+3.4%)
- **일본 도쿄 11월 CPI 상승률(신선식품 제외) 전년동월대비 +2.8%, 전월수준 유지**
 - 도쿄 11월 CPI 지표는 견조한 임금 상승, 인플레이션 기대 강화, 에너지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
 - 한편 10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+1.4%로 예상(-0.6%) 외 증가. 미국의 관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 생산 반등, 인공지능 수요에 따른 정보통신장비 부문 호재 등에 기인
- **CME, 데이터센터 장애로 거래 일시 중단**
 - 사이러스원 데이터센터의 냉각 문제로 주식, 금리, 원자재 관련 주요 계약의 선물·옵션 거래가 중단. '19년 발생한 유사한 중단 사례보다 오래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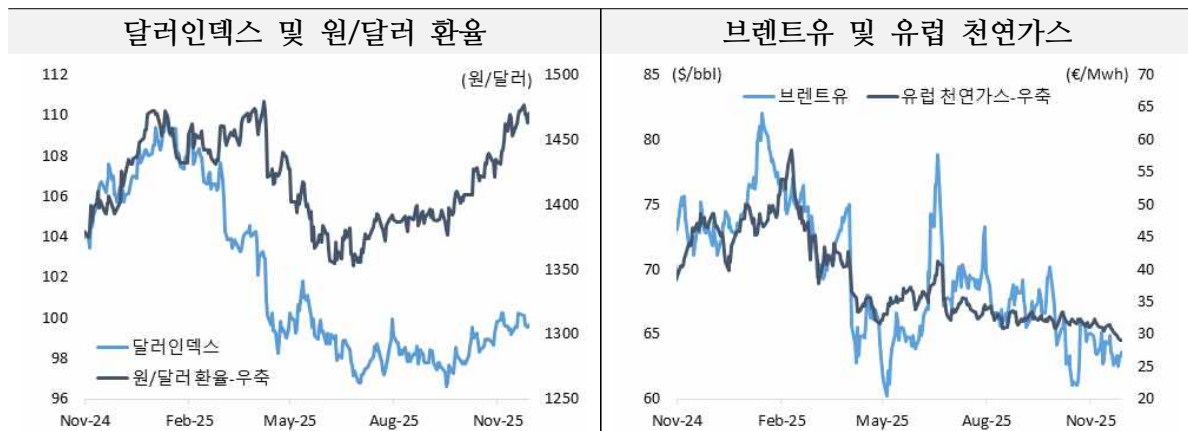
주요 경제지표

- **다음주 주요 경제 이벤트(12/1~12/6)**
 - 미국 9월 PCE 인플레이션, 주요국 제조업·서비스업 PMI, 유로존 11월 HICP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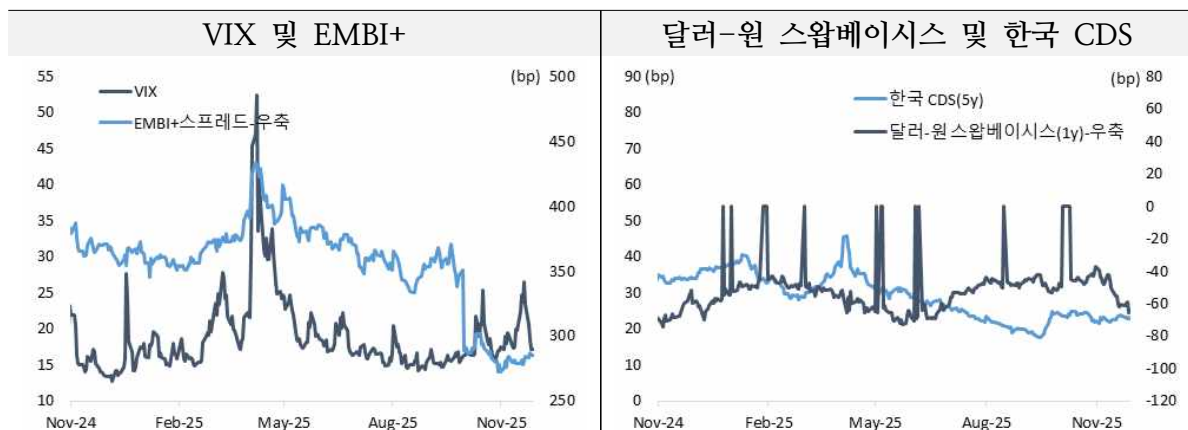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4, E-mail yshwang@kcif.or.kr